

성경에서 찾는 거대한 조류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큰 소망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좋은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사 60:2). “모든,” “각,” 등의 단어가 들어가는 성경 구절 7 군데를 찾아보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7가지 거대한 조류 (mega-trend: 미국의 미래학자 존 네이스비츠의 저서 『메가 트렌드』에서 유래한 용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조류를 뜻하는 것으로 탈공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형 조직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역자 주)에 대한 감을 잡아 봅시다.

I. 하나님을 두려워 않는 세계 정부

계 13:7 –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악하고 폭력적인 국제 연방이 생길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들을 통제하며, 참된 성도들의 박해를 조장할 것입니다.

II. 영광스러운 세계적 교회

계 7:9 –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동시에 세계 각국에선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해갈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순결과 윤리적 청렴으로 행하며, 각자의 문화와 언어에 따라 신앙을 표현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기대가 메시아를 이 땅에 다시 맞아들일 것입니다.

III. 악한 세계 종교

계 13:8 –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단**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악한 세계 정부에는 종교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폭력적 종교의 숭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전세계의 진실된 성도들은 이 압박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나, 믿음과 계시, 용기가 없는 자들은 굴복할 것입니다.

이 악한 종교의 숭배에 대한 요구는 마치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과 같을 것이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타는 풀무 불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 받은 3명의 유대 청지기들의 경우 같을 것입니다 (단 3).

IV. 성령의 부으심

행 2:17 -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을 두려워 않는 이들이 악한 짐승을 숭배하는 때에, 신실한 이들 가운데엔 크나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마지막 “오순절”에 부어져 땅 끝까지 덮을 것입니다. 전세계의 참된 교회와 회중들은 1세기 메시아닉 성도들이 행 2에서 체험한 것과 동일한 부흥을 체험할 것입니다 (골 2-3). 여기엔 예언과 치유, 기적이 동반될 것입니다.

V. 이스라엘의 부흥

롬 11:26 -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2:17의 “모든 육체”라는 표현은 롬 11:26의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에 영적 부흥이 있을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1세기엔 이스라엘에서만 단독으로 부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기의 부흥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엔 역동적인 메시아닉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임계 질량 (critical mass)”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계적 마지막 오순절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양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열국의 영적 기름 부으심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심은 세계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VI.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의 창궐

슥 14:2 -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악한 연방 정부는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성도를 탄압하고 거짓 종교 숭배를 강요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과 반유대적 선전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반시온주의 운동의 창궐은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 한 하만의 시도 (에스더 서)와 같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부는 세계 각국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도록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 전쟁은 세계의 악행이 절정에 다다른, 하나님과 그 분의 메시아에 대한 최후의 반역일 것입니다 (시 2). 그 때 예슈아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에 맞서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예슈아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기준 (context)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일으키시는 전쟁이 심판의 일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UN에서 말했듯, 각국은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인지 테러리스트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VII.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

속 14:16 -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송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반면, 각국 국민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에 가깝습니다! 각국엔 하나님께 충성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영적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림 이전, 세계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은 “함께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롬 11). 이 “접붙임”이 예슈아의 재림과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세계 통치를 이끄는 믿음의 언약일 것입니다 (사 2:1-4, 미 4:1-5, 계 11:15, 마 6:10).

[주: 국제 어글로우에서 최근 개최한 집회에서, 대표 제인 핸슨 호이트 Jane Hansen Hoyt 는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들이 옷에 붙이도록 강요 받았던 것과 닮은 노란 “다윗의 별” 모양 스티커를 나눠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로, 제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반유대주의와 반메시아주의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집회에서, 빅토르 칼릴 Victor Khalil (무슬림 출신 이집트 성도)과 저는 예슈아 안에만 존재하는 화해와 언약적 사랑의 표현으로 무대 위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